

물사랑 아이디어 | 물사랑 일기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줄기를 이루듯…

글 권덕희 _ 공무원

기끔씩 보이는 햇빛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호우 로 인한 물난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고 보니 물에 대한 소중함 보다는 물난리에 사람들 의 마음에 상처가 남을까 염려되는 계절이다.

한 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이다. 그것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물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에는 물 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절이다. 이럴때 일수록 물의 소중함과 두려움을 알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인체의 구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근육과 뼈가 단단히 결합 하여야 하듯이 하나의 작은 물 방울은 결정체가 수없이 모여 한 모금의 물이 되고 다시 그것이 모여 개울을 이루고 강 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작은 한 방울의 물이 만들어 지기까지에는 대 자연의 신비한 조화가 끊임없이 이루어 져 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젖줄인 강은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하여 실 핏줄 같은 샛 강을 만든 후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듯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인 물질이지만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가장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루려는 '시작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라 생각된다.

작은 마음 하나가 사회를 아름답게 하듯이 한 방울의 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우 리의 자연과 강은 더욱 더 맑고 푸르게 변해 갈 것이다.



대중 목욕탕에서…

글 이동영

요즘 신설된 목욕탕에서는 어르신들이 수도꼭지와 사워 꼭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이것 저것 마구 틀어 보이야 될 정도로 알 수가 없다. 그러는 중에 수돗물은 계속 낭비가 된다.

목욕탕마다 수도 사용법이 다르다. 샤워에서 그냥 수도

로 더운물에서 찬물로, 4가지가 달려서 헷갈린다. 이리 저리 한참을 돌

린 후에 깨닫는다. 사용법을 조절 꼭지 위에다가 써서 달아 놓으면 물 절약이 될 것이다.

물사랑 실천. 빈 그릇 운동으로

글 이희삼

식당에서의 일이다. 처음에는 무심코 음식을 시키고 동료와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다가 '빈 그릇 운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반찬을 골고루 알뜰히 먹게 되었다. 조금은 많다고 생각을 했으나 골고루 먹다 보니 정말 빈 그릇이 생기고 말끔히 먹게 되었다. 물론 추가로 많이 준다는 반찬은 사양했다.

나올때 우리의 밥상은 정말 깨끗하였다. 음식쓰레기로 물을 오염시키지 않은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우리 모두 작지만 가정에서 식당에서 '빈 그릇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또 실천을 해 나갔으면 한다. 깨끗한 물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물사랑 칼럼

물사랑 아이디어



모사랑 익기



2005. 5. 27

소중한 깨달음

글 jeong4050님 _ 관리/사무직

아파트 물탱크가 깨져서 보수를 한 후, 물탱크를 건조시키기 위해 아파트 한 동 전체가 하루 이상 단수 되었습니다.

쌀 씻은 물로 설거지 하고, 그 물로 다시 걸레 빨고 화장실에 사용 했습니다. 화장실 변기를 내려 보내는데 어느 만큼의 물이 필요한 지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물을 마구 쓰다가 전 국민들이 제가 겪은 일처럼 불편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실천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게 되었고, 수도 꼭지를 틀었을 때 바로 물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소동으로 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살 아가면서 더 아껴 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5. 6. 10

내가 가르칠 것들

글 yupgi97님 _ 교직자

물사랑 캠페인으로 글짓기와 포스터 그리기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라고 작년에 알게 된 물사랑 홈페이지에 들어와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내심 뿌듯해 있었는데 아이들은 내

용보다 플래시의 코믹한 면을 더 좋아하는 듯해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

늘 고민하지만 잔소리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정말 잠시인 것 같다. 재미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한번 시행해 봐이겠다. 물 없이 생 활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알아가기!!!

하루쯤 이런 행사는 어떨까? ^^